

언제 어디서든 법화경 들을 수 있어

〈우리말 법화삼부경〉 앱 출시

운주사에서 출판된 〈우리말 법화삼부경〉의 내용을 스마트폰에서도 들을 수 있게 됐다.

〈법화경〉 〈무량의경〉 〈불설관보현보살행법경〉 〈법화경해제〉를 스마트폰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언제 어디서든 쉽게 들을 수 있게 된 것.

〈법화경〉앱은 전 조계종 문화국장 혜조 스님과 안진보 연동산업 대표, 최대중 다나 대표 등이 함께 만들었다.

안진보 연동산업 대표이사는 “혜조 스님의 ‘법화삼부경 CD’를 듣고 현대에 맞는 새로운 감각으로 경전을 보급하고자 원력을 세우고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안진보 대표이사는 2010년 지인으로부터 혜조 스님의 법화삼부경 CD를 선물로 받아 듣고는 혜조 스님께 무작정 전화를 드려 “CD내용이 좋는데 시간이 없어 경전 공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현대에 맞는 ‘경전 앱’을 만들면 어떻겠냐”고 말씀 드렸다.

혜조 스님은 흔쾌히 허락했고, 앱 개발업체인 (주)로드피아(대표 변창수)가 프로그램을, (주)다나(대표 최대중)가 디자인을 맡아 완성했다.

안 대표이사는 “당시 앱을 만들고 싶은 마음은 컸지만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어 고민하던 중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도움을 받아 〈법화경〉을 시작으로 〈무량의경〉과 〈불설관보현보살행법경〉을 앱으로 제작했으며 〈법화경 해제〉까지 만들게 돼 도와준 모든 인연에 감사



전 조계종 문화국장 혜조 스님과 안진보 연동산업 대표, 최대중 다나 대표 등이 함께 만든 법화경 앱이 출시됐다.

를 드린다”고 말했다.

〈법화경〉앱은 안드로이드 앱마켓에서 ‘법화경’을 검색해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제1권 서문부터 제7권 보현보살권 끝까지 모두 무료로 내려받아 들을 수 있다.

혜조 스님은 “처음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경전을 만들었는데 점자보다 CD에 낭송해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이 CD가 애플리케이션으로까지 발전하게 됐다”며 “좋은 경전들을 현대적 버전으로 재탄생시키려는 불교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내나 기자

파라미타, 청소년문화재지킴이 공모 발표

수기...개포중 조세현, UCC...잠실여고 박규란 최우수상 수상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여, 이하 파라미타)는 제5회 청소년문화재지킴이 수기·UCC 공모전을 열고 우수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 300명의 청소년 지킴이단과 학생들이 공모해 청소년문화재 수기공모전에 12명, UCC공모전에 9팀이 선정됐다.

청소년문화재지킴이 수기공모전에서는 최우수상인 문화재청장상에는 개포중 학교 조세현 학생이, 우수상에는 형석고등학교 최지윤 학생이, 금상에는 울곡고 구경민 학생이 수상했다.

UCC 공모전에서는 최우수상에 잠실여고 박규란 학생이, 우수상에는 서꽃중학교 황우진외 7명이, 금상에는 더불어꿈의 김민태 외6명이 수상했다.

파라미타는 “이번 공모전 심사는 학생들이 진정된 마음으로 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지킴이 활동을 통해 선조들의 지혜를 배워 성숙된 가치관과 역사가 될 수 있는지를 보는 자리였다”며 “이번 행

사를 통해 청소년들의 시각으로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비롯해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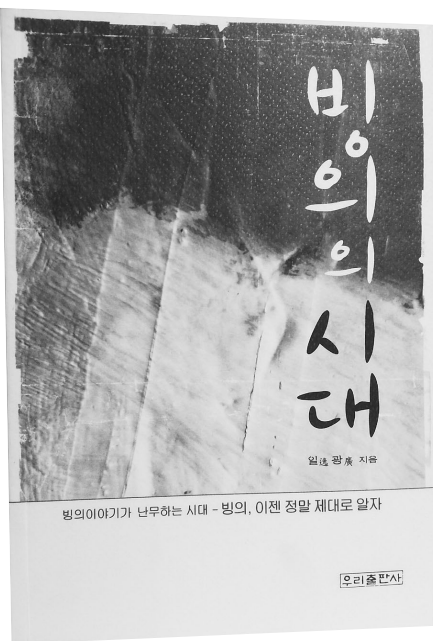
이어 파라미타는 “대한민국의 문화재는 불교문화가 7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청소년들에게 문화재 애호활동을 독려하고 사찰과 불교문화를 접하게 해 자연스럽게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인지하게 하는 것이 이번 공모전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파라미타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문화재지킴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 11월 30일 문화재청과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가 협약을 체결, 2012년부터 파라미타가 청소년문화재지킴이활동 위탁관리를 맡아왔다.

파라미타는 이 사업을 통해 3년 동안 7만여 명의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를 위촉하고 청소년들이 문화적으로 성숙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육성을 돕고 있다. 이번 공모전 상장 및 상금은 각학교 및 단체, 수상자에게 개별 시상될 예정이다.

이내나 기자

빙의환자를 위한 최고의 참고서



지은이/ 일광(逸廣) 신국판/ 312쪽/ 9,500원

빙의란 무엇이며 어떻게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가? 또 그 치료법은 무엇인가? 일평생 빙의치료를 공부해온 저자는 이 책에서 사후 영역에 있어야 할 귀신이 인간한테 접신되는 과정과, 귀신을 천도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 등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빙의 환자를 위한 일광 逸廣 도인의 전언!

빙의는 퇴마가 아니라 귀신을 천도 遷度해 줌으로써 치료된다

사람의 병에는 지수화풍의 불균형, 즉 생활습관이나 음식 등으로 생기는 병, 귀신이 붙어서 생기는 병, 전생의 업 때문에 생기는 병 등 세 종류가 있다. 이 가운데 생활습관이나 음식 등의 불균형으로 생기는 병은 의사가 고칠 수 있지만, 귀신이 붙거나 전생의 업에 의해서 생기는 병은 오로지 도통한 도인만이 고칠 수 있다.

- ▶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 꿈에 죽은 사람이 자주 보이고 가위눌림에 시달리시는 분
- ▶ 몸에 통증은 있지만 병원의 진단에는 이상이 없는 분
- ▶ 원인 모르는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 8세 미만의 자폐증 환자
- ▶ 8세 미만의 뇌성마비 환자

※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010-5040-7679 로 전화 주십시오.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립니다.

“한자공부·스키캠프로 智德體 기르자”

사찰 및 불교단체 어린이·청소년 겨울방학 프로그램

겨울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때가 되면 부모들은 자녀들이 유익한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캠프 및 교육 프로그램들을 찾는다.

전국 사찰과 불교단체에서는 방학을 맞아 한문학당, 템플스테이, 스키캠프 등 어린이·청소년 체험문화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산사에서 한문을 배우고 스님과 참선하는 한문학당을 비롯해, 스키캠프와 수련회는 지덕체를 함양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프로그램이다.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여)는 1월 4~6일 강원도 횡성 웰리힐리파크 유스호스텔에서 ‘제5회 사찰 청소년 겨울수련회’를 개최한다.(02-723-6165)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이 흥미와 재미를 가질 수 있도록 겨울스포츠인 스키와 수련회를 결합한 것으로, 수준별 스키강습을 배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야간·자유 스키를 탈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충북파라미타청소년협회 또한 1월 21~23일 강원도 횡성 웰리힐리파크에서 동계스키 캠프를 개최한다.

수원 용주사(주지 성월)는 1월 9~11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집중력을 기르고 마음을 치유하는 ‘마음의 보물찾기’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효행사찰로 잘 알려진 용주사를 둘러보고 박물관을 견학하면서 배우는 ‘사찰 속 효심 찾기’, 항상 주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미·사·고 치유명상’을 비롯해 부모님 마음을 헤아려보는 ‘부모은중경 독송 및 감사편지 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용주사는 특히 어린이들이 쉽고 지루하지 않게 명상을 할 수 있도록 경기명상, 놀이 명상, 숲 명상, 참선 등 다양한 수행법을 진행할 예정이다.

파라미타... 스키캠프 개최
용주사... 다양한 명상체험
쌍계사·미항사·부석사는
한문학당으로 인성·예절교육 실시



산사에서 한문을 배우고 스님과 참선하는 한문학당을 비롯해, 스키캠프와 수련회는 지덕체를 함양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프로그램이다. 한 사찰에서 한문학당에 참여하고 있는 어린이들. (현대불교 자료사진)

사찰 및 불교단체 겨울방학 프로그램

운영기관	행 사	기 간	연락처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스키캠프	1월 4~6일	02-723-6165
충북파라미타	스키캠프	1월 21~23일	043-224-5257
수원 용주사	마음의 보물찾기	1월 9~11일	031-234-0040
하동 쌍계사	한문학당	1월 11~15일	055-883-1901
해남 미항사	한문학당	1월 3~9일	061-533-3521
서산 부석사	한문학당	1월 4~10일	041-662-3824
부산 흥림사	오감체험 음악캠프	12월 26~28일	051-508-0345

이밖에 ‘사자소학’ ‘법구경’ ‘명심보감’ 등을 배울 수 있는 한문학당 교실도 마련돼 있다.

하동 쌍계사는 1월 11~15일 초등학교 3~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문학당 교실을 개회한다. 매일 아침 머리가 좋아지는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아이들이 한문에 흥미를 갖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한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지리산산행, 섬진강 어류 전시관 탐방, 다도체험, 레크리에이션 등 문화와 자연체험학습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이밖에 부산 흥림사(주지 심산)는 12월 26~28일 초등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오감체험 음악 캠프’를 개최한다. 캠프는 내용의 감각을 깨우고, 오감을 느끼며 순간순간 집중해 나가는 시간으로 진행되며, 둘째 날에는 부산시립 소년소녀합창단&시립교향악단 연주를 관람할 계획이다.

이내나 기자 oasis1983@hyunbul.com

성북구 청소년 53.8%... “명상하면 마음 편해져”

풍경소리, 성북구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발표

청소년 명상보급을 위해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실태조사하고 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지하철 풍경소리(대표 혜자)는 12월 3일 풍경소리 학교에서 ‘청소년 명상보급을 위한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보고회를 열었다.

풍경소리는 지난 6~10월 월곡지역아동센터, 인디 학교 등 성북지역 비영리기관과의 연대를 통해 성북구에 거주 혹은 성북구로 통학하는 509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4년 조계종 사회부

에서 실시한 ‘불교시민사회단체 공모사업’에 선정되 진행된 것이다.

조사에 의하면 명상을 경험한 적이 있는 학생은 56.1%였으며 명상의 필요성에 대해 명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36.4%, ‘명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마음이 편안해진다’가 53.8%, ‘스트레스를 해소해준다’가 19.0%, ‘집중력이 향상돼 학업성적을 올릴 수 있다’가 14.0%, ‘현실을 잊게해준다’가 9.5%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발제를 맡은 김길영 교육학 박사는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명상은 청소년들의



지하철 풍경소리(대표 혜자)는 12월 3일 풍경소리 학교에서 ‘청소년 명상보급을 위한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보고회를 열었다.

삶의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생생하게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명상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은 물론 신체적인 건강에도 도움을 주며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성 풍경소리 사무총장은 “풍경소리 명상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과 더불어 청소년의 자존감과 자애감을 증진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실제적인 조사를 실시했고, 그 조사 결과 명상을 접한 청소년과 명상을 접하지 않은 청소년 사이에 심리적 안정감이 있어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풍경소리에서 실시하고 있는 명상심리 지도사 자격 프로그램을 통해 지도사를 양성해 청소년 명상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마음챙김 명상, 영어명상 등 명상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내나 기자

이내나 기자